

성 장주기 요셉 (1803-1866)



성인(聖人).
축일은 9월 20일. 회장.
세례명 요셉. 일명 낙소(樂詔).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103위 순교성인 가운데 수원의 양간(현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느지지) 출신으로서 성인이 되신 유일한 분이다.

1827년경 고향인 양간에서 세례를 받고 1836년 양지의 회장을 역임했으나, 주된 활동은 1843년부터 1866년 순교할 때까지 23년간 정착하여 활동한 제천의 배론(舟論, 현재의 충북 제천시 봉양면 구학리) 신학교에서 푸르티에(朴) 신부와 프티니콜라(申) 신부를 도와서 신학교 한문교사 겸 선교사들의 집주인 역할을 한 것이다.

1866년 3월 30일 충청도 보령의 고마 수영(水營)에서 다블뤼 주교 등 4명과 함께 참수 치명하였다.



오시는길

◎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방법

• 수원역에서 안중방향 시외버스 8472번 (50분소요) 느린 휴게소 정류장 하차, 휴게소 좌측 마을길로 20분(1Km)정도 걸어오시면 요당리성지에 도착합니다.

◎ 전세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방법

-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 (요당리성지까지 8Km) → 평택(아산 안중)방향 6Km → 고잔저수지 부근 요당리방향 우측끝 도로(지하차도 이용 좌측방향 2Km직진) → 요당리성지 도착
-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 IC (요당리성지까지 4.5Km) → 수원 발안 방향 3Km → 우측끝 도로 만남의 광장(모텔건물지나 우회전 1.5Km직진) → 요당리성지 도착
- 참고 — 대형버스는 느린휴게소 좌측길로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미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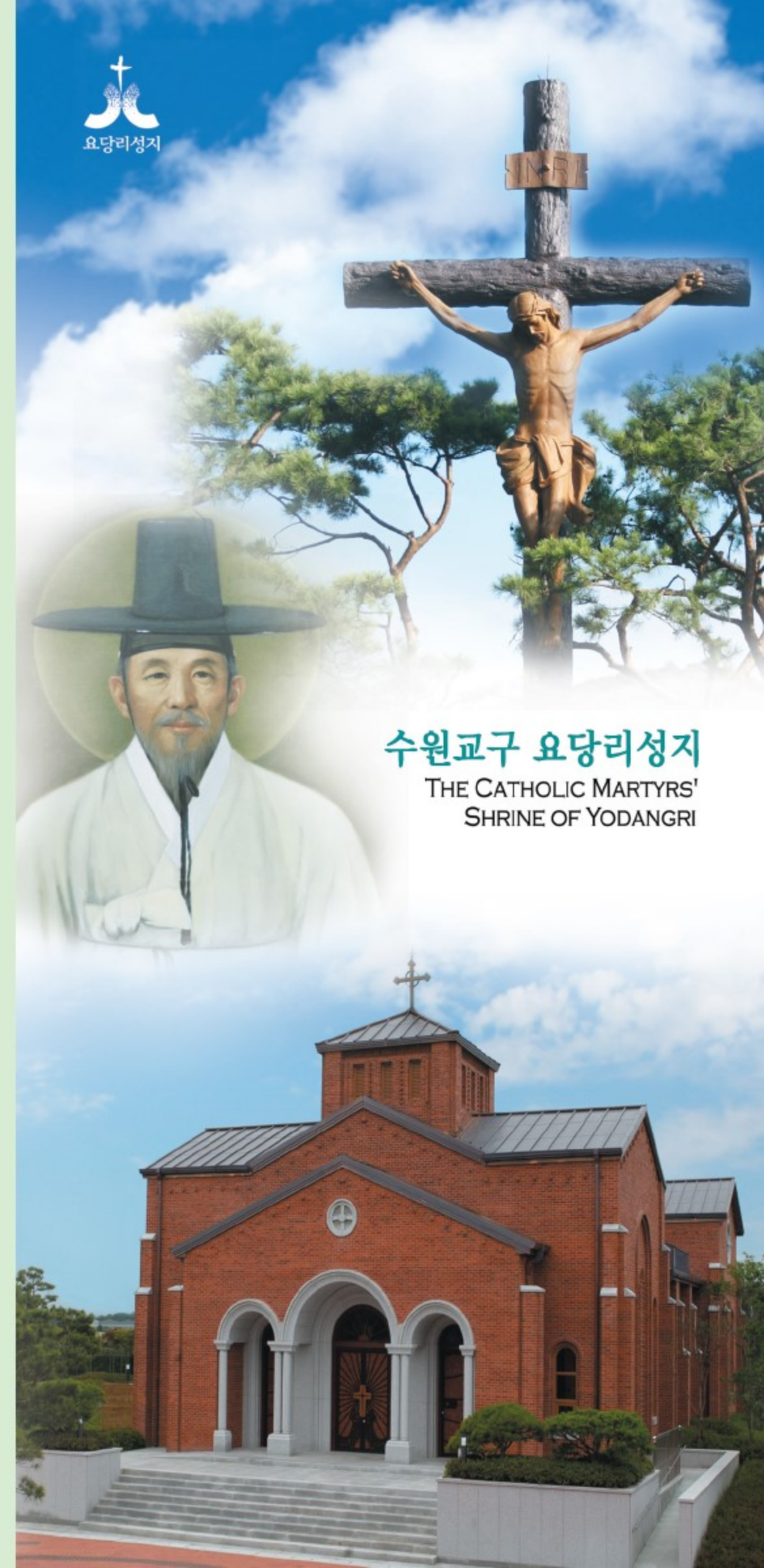
- 미사시간 : 평일/주일 11시(월요일은 미사가 없습니다.)
- 단체 순례객들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조율 후 단체 순례객들을 위한 별도의 미사 봉헌 및 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지 사무실로 문의 주십시오.

성지 후원회 은행 계좌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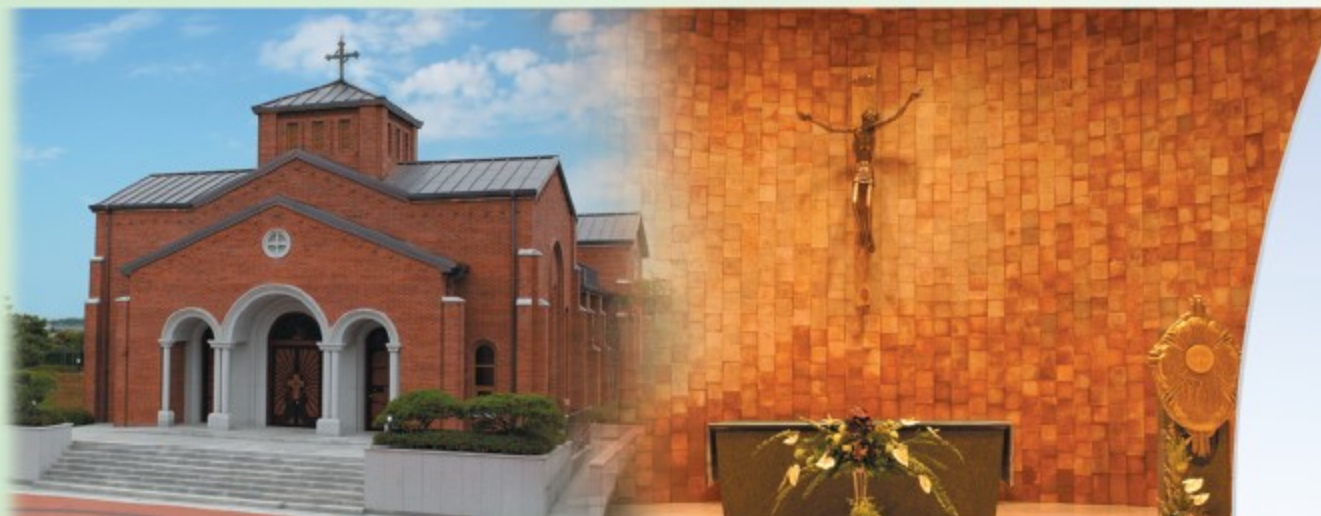
- 신한 03087-12-000663 예금주: 요당리 성지 후원회
- 우리은행 1006-901-241096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 농협 207046-51-001515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요당리성지
- 국민은행 468637-04-002844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요당리성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155
사무실 전화 : 031)353-9725
팩스 : 031)353-9785
홈페이지 : <http://www.yodangshrine.kr>



수원교구 요당리성지
THE CATHOLIC MARTYRS'
SHRINE OF YODANGRI



요당리 성지는 복음이 언제 전파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신유박해(1801

년)를 기점으로 서울과 충청도 내포 등지의 신자들이 피난하면서 형성된 교우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교우촌은 양간공소라 불리며 갯등이(현재의 왕림)와 은이공소(현재의 양지)와 깊이 연계되어 활발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닷물이 유입되어 뱃길이 열렸던 이곳의 지리적 특성상 충청도와 경기도 내륙, 서울을 잇는 선교루트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기해년 (1839년)과 병인년 (1866년)에 일어난 두 번의 박해를 통해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로 하느님을 증거한 신앙의 요람지였습니다. 이런 유서깊은 곳이였기에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얼이 서려 있습니다.

첫째, 장주기(요셉, 1803-1866)성인과 124위 복자중 한분이신 장 토마스(1815-1866)의 출생지이자 신앙의 터전이었고, 이곳 출신으로 하느님의 종 지 다태오(1819-1869)와 순교자 림 베드로, 조명오(베드로), 홍원여(가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주기(요셉) 성인의 친인척이자 이곳 출신 순교자로 추정되는 장경언, 장치선, 장한여, 장요한, 방씨 등이 있습니다.

둘째, 교회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이 운영되었던 곳으로 그 책임을 맡았고 끝내는 순교하신 민극가(스테파노, 1787-1840)성인과 이곳에서 공소회장을 맡으며 신앙전파에 힘쓰다 순교하신 정화경(안드레아, 1808-1840) 성인께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셋째,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피신하셨다가 순교하신 앵베르 범(라우렌시오, 1796-1839) 성인과 이분의 피신을 돕다가 순교하신 손경서(안드레아, 1799-1839) 순교자의 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요당리 성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주기(요셉) 성인의 출생지이고, 예전부터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다” 라는 정도로 치부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여겼던 최덕기(바오로) 주교는 2006년 9월 26일 성지 전담 사제를 파견함으로써 성지개발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게 되었습니다